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58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9. 10. 11(금) 16:00~19:00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김혁수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승정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4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고요.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 섭외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건과 2019년도 잔여예산을 활용한 지원계획 그리고 2019년도 문학창작집필공간 잔여예산을 활용한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문학포럼 보조사업자 선정의 건 등 총 4건의 의결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사항으로 지역 균형지원 방안이 1건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오늘 위원 10인 중에서 9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전차(前次) 회의에서는 6개의 안건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3건은 원안의결이 되었고 3건은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는데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구요.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4개의 의결 안건 중에서 첫 번째 의결안건은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 섭외 절차를 결정하는 건입니다.
이 안건은 정창호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안건번호 제 767호 2020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구성방안 및 심의위원 위촉절차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제1항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2020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구성방안 및 심의위원 위촉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기본계획(안) 6월 28일자로 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포함된 내용은 심의위원 온라인 등록제 시행, 전문분야 개편, 심의위원 후보단 임기제 폐지, 심의총량제 누적제 개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심의전문가 온라인 공개모집을 접수했습니다. 8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였습니다.
지원심의제도개선TF 심의위원 구성방안을 논의하면서 예술현장 라운드테이블, 위원-사무처 워크숍, 지원심의개선 예술현장 토론회 등에서 이 건에 대한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9년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와 차이점은 신청인원이 적은 경우 4~6인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추천 기능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추천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로 나타난 것이 장르별 선정위원회에서 장르 위원 외에 문화일반 분야의 위원이 당연직으로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장추천 등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심의위원 후보단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열지 못한 점은 기존에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현장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래사항은 참고로 2018~2019년도 장르별 위원 구성인원과 장르별 당연직 위원 운영 현황입니다.

그리고 2018~2019년 선정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자격기준은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자격요건 같은 경우는 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께서 추천해 주셨고요. 선정위원회에 포함되었던 인사는 심의위원 후보단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당해 연도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2번을 열었는데요. 특히 음악이나 무용, 문화일반은 적은 관계로 추가한 한 번 더 선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 위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위촉절차는 크게 2가지로 이원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 방식 모두 최종 섭외순위는 장르별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써 이 부분이 외부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의결과 발표 시에는 현장에서는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곧 심의결과의 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사업부서별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했다.” 라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직접 들었던 의견부분에는 “적격자지정 방식이 무엇이나?”, “위원이 섭외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 절차가 공정하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스의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정심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의기준이 명쾌하지 못하다는 것과 심의위원회 자질 문제도 있었고요. 심의위원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2019년 심의위원 위촉절차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2020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시에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열었던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 후보단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별 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의 세분화를 통한 예술현장의 결과수용도 제고입니다. 이번에 관심을 둔 부분은 전문성이나 과정체계 구현을 위해서 후보단 틀에서 벗어난 전담심의위원제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의 공개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연중 모집하고 있는 심의위원 후보단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것을 과연 7개의 장르별로 각각 심의위원회를 계속 분기별로 열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의 취지는 현장의 예술적 전문성 부분은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선정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을 위해서 별

도의 외부 위원을 6인 내외로 위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리하면 내부 해당분야 위원님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고 외부는 법조·행정·경영·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6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예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권익위나 감사부 옴부즈만, 시민단체, 아르코혁신TF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모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간 4번은 개최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때마다 개별적으로 6인의 외부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 구성과정 및 운영결과를 분기별로 예술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스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20년 선정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자격기준인데요. 이 선정위원회의 명확한 기능은, 일단 본인이 신청한 사람 외에 현장추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적격성 심의검토로 이해를 하시며 될 것 같고요. 구성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히 지역, 여성, 신진을 안배해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활동기간은 1년인데 연초부터 1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사업연도 기준에 맞춰서 2019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7월까지 4번의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신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선정위원회 위원은 4번의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대신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을 하시거나 지원 사업에 신청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달았습니다.

두 번째 심의위원 위촉절차 방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심의위원 섭외순위에 대한 최종결정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향유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후보단 내에서 3~5배수로 100% 무작위 추첨을 해서 섭외순위까지 난수표에 의한 섭외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작사업의 경우에는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일전에 위원-사무처 워크숍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희 후보단이 안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과 위원장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여 필요인원의 4배수를 구성한 후에 섭외순위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추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적격자 지정방식의 심의위원 구성방식 개선을 보시면, 가장 큰 목적은 예술분야에 대한 위원의 전문성과 사무처 행정의 책임성을 접목해서 심의위원 구성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위원과 위원장이 협의해서 필요 심의위원의 2배수를 각각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의 공통사항으로 위원의 경우 장르 위원 1인이 전담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일반 위원 1인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만약 후자라면 각각 2배수이기 때문에 6배수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의위원 위촉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결과 발표 시에 심의위원 위촉방식(무작위 추첨/적격자 지정)과 과정을 공개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담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심의평가의 일관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2020년 시범적으로 전담심의위원제를 단계별 사업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적용사업은 공연 예술창작산실의 올해의 신작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심의위원의 기능 및 역할은 각각 심의부터 평가, 피드백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개선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이 전담심의위원회의 구성방식은 기본적으로 후보단 풀 내에서 해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적절한 전담심의위원 리스트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분야의 위원들과 협의해서 장르별로 구성한 뒤에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최종적으로 전담심의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절차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일전에 강운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담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은 최근 현장 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다양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신 분들인가? 그런 현장성 부분을 추가적으로 많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규모 부분은 일단 기획/제작/평론 비중을 강화하고 세부 분야별 1인씩 총 7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활동기간은 이 사업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대략 1년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전담심의위원에 위촉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당해 타 사업 심의위원 활동 및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담심의위원의 경우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술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 시점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담심의위원 리스트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10월 24일 공모기간이 끝난 이후 해당 사업에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25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할 때까지 전담심의위원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별도로 이 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향후일정 부분입니다.

향후일정 부분은 선정위원회 구성방안과 심의위원 위촉절차를 오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통합 선정위원회 개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상당히 빠듯한데요. 저희가 25일에 위원회 전체회의를 의결날짜로 생각했을 때 적어도 21일에서 23일 중에는 꼭 선정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가 25일 의결을 할 때는 선정위원회 후보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후보단 모집 재개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14일부터는 선정위원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 후보단 등록은 10월말까지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붙임자료1은 적격자 지정방식의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3가지 안을 구성했었는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붙임자료2는 2018~2019 선정위원회 구성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8~2019년도에도 구성할 때 여성, 지역, 신진에 대해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에 고민하고 적절히 배분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 추가 선정위원회를 구성 명단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악, 무용, 문화일반의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별도로 1번 더 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의 명단입니다.

참고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전문가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등록 현황은 1,510명입니다만, 저희가 등록 중인 분들이 29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소분류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1번의 표에서 전문가 회원으로 등록이 완료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1,2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9.5%에 해당하는 일반회원께 계속 전화를 드리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남은 기간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일단 1,215명은 확정이 된 것이고 전체 저희 풀 속의 80.5%가 등록을 완료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 후보단 1,400명 중에 있었던 분들은 749명이 등록을 새로 해 주셨고요. 신규 등록이 46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15명 중에 약 40%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규 등록 인원이 되고 이 분들을 후보자 선정위원회 때 검토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표가 2번, 3번, 4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2번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3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회원 즉 등록이 완료된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 연령, 성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남녀 비율이 있는데요. 먼저 20대, 30대, 40대, 50대 등 연령대 비율을 보면, 50대가 40.6%로 비중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40대 30.7%, 30대가 4.2%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73.2%대 26.8%로 되어 있고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율을 보면, 수도권의 여성비율이 34% 그 다음에 비수도권이 8.1%로 해서 전체로 봤을 때는 약 42%가 여성위원이 지금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수도권에 비해서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번의 신규 전문가 회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66명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녀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만, 466명 중에 30대와 40대가 기존 전체 전문가들 보다는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표에 나와 있는 30대와 40대의 %를 합치면 약 35%가 되는데요. 4번의 신규 전문가 회원의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40대가 약 39.3%로 약 5%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본인등록제를 하다보니까 30대나 40대의 신청자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전문가 회원 장르별 등록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명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15명이지만 복수 선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록 현황은 1,9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두 번째에 있는 선정위원회 인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선택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문학이 110명이고요. 시각예술이 85명, 음악 70명, 연극뮤지컬 78명, 무용 37명, 전통예술 32명, 문화일반 54명으로 총 466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일정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선정위원회 후보

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 받은 양이 만만치 않은데요. 사무처장이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난번 워크숍 이후에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선정위원회를 통합해서 정하는 것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적격성과 전문성에 대한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는 심의위원들의 위촉 방안에서 향유사업인 경우에는 적격자 부분을 추천된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한다는 것입니다. 창작사업인 경우에는 장르 위원과 위원장님이 공동 협의해서 2배수씩 추천해서 4배수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섭의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전담심의위원은 단계별 사업에 적용하는데요. 올해의 신작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사업입니다.

전담심의위원은 기존에 등록된 심의 풀에 의존하지 않고 적합한 분들을 추천받아서 해당 분야 위원들과 장르별로 구성해서 위원장님의 의견과 결재를 득해서 전담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사전에 이 분들은 심의 전에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여기 '위원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의 경우 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한 사무처의 수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 말씀을 보태자면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균형 비율 같은 것은 현재 제도 안에서 일정하게 영역을 나누게 되면 반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을 특정하게 구획해서 심의위원을 모시게 되면 원하는 만큼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으니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구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8페이지를 보시면 섭외순서를 장르별 위원이 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9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서 심의위원 풀에 이미 들어있는데 무작위 추첨방식을 먼저 하지 않고, 그리고 무작위 추첨을 했다가 장르별 위원이 섭외순위를 정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로 인정한 심의위원 풀 중에 위원과 위원장이 협의해서 4배수를 구성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나요? 나는 거꾸로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여기에서 핵심은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 것인지 섭외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나종영 위원

- 아닙니다. 섭외순위를 정한 것은 이미 전문가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랜덤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무작위 추첨을 하지 않고 위원과 위원장이 협의해서 4배수를 뽑아요. 그것은 더 공정성과 투명성이 안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미 전문가로 뽑아진 곳에서 랜덤으로 추첨하고 섭외순위만 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섭외순위를 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위원이 4배수로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하겠어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적격자 지정방식,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게 아니라 향유 사업은 무작위 추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격자 지정방식은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무처에서 일단 적격자를 지정해서 위원님 들한테 배수로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고민했던 방식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일단 섭외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접근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사무처가 3배수로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님들이 실제로 적격 지정방식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섭외순위를 정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무처가 온전히 해야 하는가? 위원님이 온전히 해야 하는가? 아니면 같이 하는 지에 대한 것을 놓고 접근을 했는데요. 저희 사무처의 판단에서는 그래도 사무처에서 인원을 뽑고 위원님들이 뽑아서 섭외순위를 랜덤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으로 접근을 한 내용입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미 전문가라고 해서 풀에 들어온 사람의 섭외순위를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것을 사무처와 우리 위원들이 배수를 다 정한다면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 들이냐는 겁니다. 차라리 향유 사업처럼 풀어 놓으면 안 되나요?

○전효관 사무처장

-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방식은 사무처에서 3배수를 선정했는데요. 그렇게 선정했다는 과정을 공개할 수가 없고, 위원님들이 순위를 정하시는 것도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라는 것은 해당 장르 전문가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2배수를 추천하고 집행부서의 책임자로서 2배수를 추천해서 랜덤으로 추첨했다.” 이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추천하신 분들의 책임성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저희 사무처의 입장에서도

이게 잘 되었냐 못 되었냐에 대한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위 추첨을 한다는 것은 지금 풀의 성격으로 보면 전문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풀을 만들 때는 전문가로 인정해야 한다니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적격자를 선정해서 3배수로 올렸다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랜덤으로 올라온 것을 섭외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희경 위원

- 아닙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럼요?

○이희경 위원

- 적격자를 사무처에서 올린 겁니다.

○나종영 위원

- 지금까지 그랬다는 말입니까?

○이희경 위원

- 왜냐 하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의 각 분야가 있잖아요.

○나종영 위원

-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희경 위원

- 소설이나 시는 구분이 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랜덤으로 돌려서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전문가라고 해서 적격자를 압축해서 하지 이렇게 수많은 풀을 만듭니까?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사무처에서 정하고 있으면서 왜 천 몇 명이나 하죠?

○이희경 위원

- 왜냐 하면 저희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으로 하면 계속 비슷한 사람이 심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종영 위원

- 적격자로 하신다면서요?

○전효관 사무처장

- 심의에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차별하지 않고 누가 들어오든 해 줘야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하나는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고요. 사실 해당 장르나 위원회에 위촉된 분과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사무처에 책임성을 묻는다는 게 하나의 원칙이고요.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3가지 원칙을 갖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사실 3~4년이 지나가면 심의방식이 조금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풀이 검증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일단 적격성을 심의하더라도 더 적격한 부분들에 대한 선별 기능은 유지하고 책임성을 갖고 가되 과정이 어떻게 되는 지는 심의대상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풀이라는 것은 전문가로 인정해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섭외순위를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섭외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선정했다고 자신 있게 나가면 안 되나요?

○강홍구 위원

- 자신 있게 나가기 위해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종영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이나 위원장이 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강홍구 위원

- 위원이나 위원장이 풀 안에서 정하지 않으면 누가 정합니까? 저희 장르를 예로 들면, 저희가 사진과 영상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각이나 다른 쪽에서 들어와서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파트를 저희가 3배수나 4배수로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사무처에서 했지만 공개하지 못했어요.

○나종영 위원

- 각 장르별로 심의위원들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강홍구 위원

- 그런데 미술 쪽을 예로 들면 사진장르 심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풀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처 직원은 누가 전공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종영 위원

- 죄송합니다. 장르가 틀려서요. 예를 들어 문학은 시, 소설로 나뉘져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이 거기에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장르는 그런 문제에 있어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이희경 위원

- 그렇죠.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사진에서 어느 정도 풀을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칸막이로 나뉘서요.

○강홍구 위원

- 칸막이로 나뉘서 만들 수는 있지만 사진은 또 사진만 심사하는 것도 이상해요. 사실은 사진파트 일부 그리고 다른 파트가 섞여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종영 위원

- 하여튼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강홍구 위원

- 그러니까 시, 소설과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나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논리로 맞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참여성을 강화시키고 누구나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요. 과거의 일입니다만, 창작사업 같은 경우 평가결과가 낮게 나와서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 풀 자체가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심의위원 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전문성이 높아야 된다는 것과 모든 관련된 소분류의 인원이 포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저희 심의위원 풀 자체는 아직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강홍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안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위원회의 전문성이 반영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위원-사무처 워크숍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이승정 위원

- 나는 지금까지 심의위원 풀의 순위를 적어준 적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성이나 지역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밀고 한 경우가 있었습시다. 나는 내가 정하도록 올라온 사람들은 100% 랜덤으로 선택되어서 올라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희경 위원

- 이 얘기가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정 위원

- 문화일반에서 했던 것은 그렇게 하고, 장르를 지금까지 사무처에서 적격자로 해서 올렸다는 말 아닙니까?

○이희경 위원

- 적격자로 올라왔죠.

○이승정 위원

- 나는 이렇게 되었는지 꿈에도 몰랐고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희경 위원

- 우리 보고에 항상 적격자지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승정 위원

-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해 왔던 방식은 랜덤으로 올라와서 순위를 정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공정하다.

○이희경 위원

- 적격자 지정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는 오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승정 위원

-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강홍구 위원

- 그것은 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적격자 지정이 불공정하다는 논리는.

○이승정 위원

- 누가 불공정하다고 했습니까?

○강홍구 위원

- 그리고 현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회화 파트로 출품을 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심사 장르의 사람이 와서 심사를 했다고 하면 “왜 엉뚱한 사람이 와서 심사를 하나?”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승정 위원

- 제가 불공정하다고 말을 했습니까?

○이희경 위원

-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요.

○이승정 위원

- 예.

○이희경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승정 위원

- 나는 지금까지 심사위원들을 정할 때 랜덤으로 올라온 줄 알았어요. 랜덤으로 할 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뽑다보면 이 앞에 했던 사람들을 빼고 랜덤으로 돌린 줄 알았고요. 아까 강홍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각 분야마다 입장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지금까지 사무처에서 직원들이 적격자로 추천을 했다는 말 아십니까? 그것을 여쭙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불공정하다고 했다는 반응을.

○이희경 위원

-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항상 회의 자료에.

○이승정 위원

- 저는 처음 알았다니까요.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안 읽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적격자지정이라고 항상 올라왔었어요.

○이승정 위원

- 그 적격자 지정을 랜덤으로 뽑는지 알았어요.

○이희경 위원

- 랜덤과 적격자 지정은 다른 방식인데요.

○김혁수 위원

- 제가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극협회에서 보도 자료를 낸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연극중장기창작지원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적격자인가요? 아니면 랜덤인가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중장기지원 사업은 적격자 지정방식입니다.

○김혁수 위원

-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연극협회에서 월요일날 보도자료를 내겠다는데요. 5명 심사위원 중에 지역이 없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저한테 적격자로 올라온 건 23명 중에 지역이 6명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2명이나 1순위로 넣었다

는 말이죠. 5명 중에 지역이 2명. 그렇게 했는데 자체에서 보내주신 적격자들 중에 지역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2명을 해서 제 손을 떠난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일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지역 1명밖에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서울사람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어쨌든 경기지역 1명만 된 것이죠. 저도 사실은 랜덤이나 적격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랜덤이었다면 사무처나 심사위원 심의가 중장기연극창작 사업에서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격자라고 강조를 하시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연극협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처에서는 무슨 근거로 적격자를 23명 중에 지역을 6명밖에 집어넣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결국 “못한다고 하면 다 빠져 나갈 것이고 지역에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라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극협회가 결과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월요일날 연극협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시스템상 할 말이 없는 것이잖아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그 건은 지금의 시스템과는.

○김혁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나종영 위원님이나 이승정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과연 올바르게 가는 것이냐?”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김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가 심의위원 풀을 대규모로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하면서 지역의 풀을 뽑고 성별 풀을 뽑으면 그런 문제는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걸 미리 사전에.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지금까지는 구분하지 않고 20명 중에서 몇 분이니까 순위에 따라서 변화를 주게 되고 몇 분이 빠지면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본값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나종영 위원

- 제가 이해를 했어요. 보니까 문학부분은 랜덤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시, 여성, 지역이 나눠져 있고요. 소설, 평론 등이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요. 다른 경우에는 랜덤으로 뽑으니까 해당 소장르의 심의위원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약간의 변형적인 운영을 했다고 보고 이해가 되었는데요. 나는 모든 장르에서 그렇게 랜덤으로 했다고 지금까지 이해를 해 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정 위원

- 제가 여쭙본 것도 그것을 여쭙본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수십억의 사업을 하면서 심사위원 풀을 건건이 지자체장이 모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하고 있으니까 조형물을 한다고 하면 조각 ○명이라고 하면 심사위원 풀을 7명이나 9명 등을 뽑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입니다. 양심적으로 하겠지만 업체들이 수 백 명을 넣어요. 그런데 적격하다고 해서 조각의 3명, 건축 3명, 디자인 3명을 담당계장이 골라요. 그러면 공모를 한 업체들을 뽑기 해요. 공정한 것 같죠? 그러나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한 업체에서 넣은 사람들을 3명, 3명, 3명씩 넣어요. 이것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추천을 해도 자기 풀에 있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위는 적격성으로 직원들이 뽑았다, 훌륭하게 잘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봤을 때 처음부터 랜덤으로 뽑은 상태에서 뭔가를 정리했다고 하면 그나마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결점은 적격성을 뽑아놓고 여기에서 또 순위를 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 훌륭하게 했지만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에는 모두 동의가 되고요. 저는 이승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3배수로 올려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정할 때 지역이나 여성, 세대 등을 다 고려해서 합니다. 그런데 20명을 해도 5명이 어떻게 뽑힐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연극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무작위 추천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순위를 정할 때 기록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과정을 촬영하려고 생각합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과거의 사례를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저희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기획분야, 평론분야 등을 5명 모실 때 각각 3배수나 4배수 등으로 무작위로 인원이 확정되었을 때 그 인원의 명단을 놓고 난수표로 돌리는 것이죠. 만약 랜덤으로 뽑는 것이면 엑셀에서 무작위로 뽑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그렇게 보고를 하면 말이 길어지고요. 타기관은 경찰 입회하에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희경 위원

-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과거에는 사업총괄부서에서 감사부 입회하에 그 자리에서 뽑았습니다. 물론 뽑는 과정을 별도로 촬영해서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이희경 위원

-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화를 돌릴 때는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전화를 돌릴 때는 사업부서에서 섭외순위를 받은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갔던 방식인데요. 김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의 뜻과 다르게 일정이 맞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해봐도 그 분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랜덤으로 돌려서 그 다음 사람을 정하는 것인가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하게 되는 부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스템을 만들면서 연령대, 성별, 지역에 대해 조건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랜덤으로 뽑으면 됩니다. 저희가 분야와 조건 등을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서 심의위원 적격자 지정방식을 할 경우 사무처에서 하고 위원이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사무처도 잘 모르고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도 그런 것을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 여성이나 지역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짜는데요. 이렇게 해서 짤 때는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각각의 배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 뽑을 때 지역이나 여성 등을 안배해서 뽑아도 되는 방법이 있고요.

○이희경 위원

- 저도 그렇게 뽑는데 올라올 때보면 워낙 많아서요. 그리고 너무 반복되는 사람이 하면

안 돼서 배제를 하다보면 어느 지역이 아예 없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지역이 없으니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별도로 하고 그 안에서 랜덤으로 돌려야 하는 것인지?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아예 별도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대체로 얘기가 진행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음에 어떻게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여기에 보면 통합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외부 전문가 6인 내외로 위촉하여 총 15인 내외로 통합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행정, 법조 등에서는 어떤 해당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기숙 위원

- 죄송하지만 제가 일찍 가야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것은 심의위원들의 참여도, 공정, 공평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성 몇%, 지역 몇%라고 하면 그것대로 체비뽑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공정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 여기의 위원들을 왜 뽑아냈을까요? 최소한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굉장한 안목을 갖고 전문성이 있어서 여기에 왔는데요. 그럴 경우 위원들의 책임이나 역할부분에서 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책임에서 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희경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나름 배수를 정할 때는 이러저런 것을 배려고 전문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무용은 하나같지만 세부 분야가 있고 누가 무엇을 잘하고 누가 무엇을 못하고 누가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사무처에서 잘 모르고 돌렸을 때 모르는 것을 우리가 필터링하거나 걸러내는 역할, 최소한 우리의 역할도 기여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을 때 공정은 하지만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알겠는데요.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심의위원후보단을 만든 것은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여지를 열어둔 게 전담심의위원이고요. 저희가 올해 시행해 보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담심의위원제를 과감하게 확장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종영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나중영 위원

- 정답을 찾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문학 쪽은 장르의 세분화가 잘 되어 있고 풀에 전문가가 들어왔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요. 다른 장르는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적격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노출을 시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하겠지만, 어떤 경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제하려면 랜덤이 먼저 들어오고 그 안에서 선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또 예를 들어 전담심의위원 명단도 사전에 공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담심의위원 명단이 노출되어 있는데 접촉이 안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희경 위원

- 약간 의견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나 위원님 말씀이 옳으세요. 그렇게 가야하고요. 그런데 지금의 저희 풀에서 데이터가 쌓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바뀌는 2~3년은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기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건데요. 어쨌거나 각 장르의 위원들이 들어와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지점에서는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담심의위원도 잘못되면 그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을 구성한 것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지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 자체가 공정성을...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그냥 랜덤으로 돌리는 것이 공정성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 인력 풀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형편에서 적격자 지정을 단독의 권한이 아닌 복수의 권한으로 행사해서 심의위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정리가 된 대로 참여기회는 확대되고 장르별 혹은 부문별 안배를 동반하는 책임성을 확실히 묻는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혼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랜덤이 더욱 공정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워크숍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부분들을 실제 안으로 만든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인가?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대한 판단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요. 현재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서 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정 위원

- 저는 모든 장르가 랜덤 방식으로 올라와서 위원들이 여성, 지역을 배려해서 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지 알았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다른 장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격자가 넘어온 상태에서 여성 안배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맹점이 뭐냐 하면, 이번 연극 같은 부분도 그런 전체 위원회 취지에 맞게 하려고 했으면, 20명에 대해서 지역이 6명밖에 안 되었다는 것도 그렇고요. 적격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선정한 시스템이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실패를 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모든 부분의 심사위원 풀을 제대로 만들어서 위원들이 책임감 있게 지역을 안배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확고해야 합니다. 저는 랜덤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지역을 안배하고 위원들도 혼자 하지 말고 교차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체도를 원했는데요.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아까 말한 랜덤에 지역을 안배해서 책임감 있게 하는 부분도 좋다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요약하면, 인력 풀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격자 지정보다는 랜덤한 방식으로 골라서 가는 게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그 얘기는 워크숍 때 계속해서 안이 올라왔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결정이 안되고 서로의 사안이 부딪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분야만 봐도 적격자 지정방식이 아니라 랜덤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연극 하나에도 필요한 것이 극작, 연출, 평론, 무대기획, 공연장 관계자 등 6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실 소분류가 되어서 이 분야들이 다 포함되어야 심의가 가능한데요. 그것을 배제하고 연극 전체를 랜덤 방식으로 넣는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다가 또 남녀비율이나 지역별 안배를 고민하시면 랜덤방식보다는 적격자 방식이 적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 풀의 숫자가 늘어나고 풀의 질이 높아지면 랜덤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길 것이고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계별이나 정말 책임지고 그 사업을 보면서 체크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들은 책임성 있는 전담제 같은 것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풀을 2~3년 간 발전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현실적인 안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

- 데이터의 일관성 때문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심의전문가 등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주셨고요. 그 외 심의선정위원회의 지역은 서울과 서울이외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선정위원회의 지역은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분도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선정위원회의 지역 기준은 ‘서울과 서울 이외’ 그 다음에 심의전문가 등록현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서울과 서울 이외’로 할 것인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할 것인지?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담심의위원 규모 부분에서 총 7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 이외의 지역인사 1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의 취지는 수도권이 맞습니다.

○김기봉 위원

- 12쪽부터 지역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경기, 인천은 지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결정하실 수 있을 만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결론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다 할 수가 없는데요. 의견을 모아 주시면 어떨까요?

○나종영 위원

-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구요.

○박종관 위원장

- 즉석에서 대안을 내는 게 쉽지도 않거든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사무처에서 풀을 같이 구성하려면 후보단 내에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장르별 심의위원 풀을 공유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나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올해 향유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장르 쪽 사업도 인력 풀이 차분히 쌓이고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안정이 된다

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죠.

○이희경 위원

- 아까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여쭙았는데 답변을 하셨나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못했습니다.

일단 일정이 잡히면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려서 외부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 중에 외부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모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아까 보고 중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문화예술분야와 관련 있는 권익위의 분들이나 옴부즈맨, 아르코비전TF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외부 인사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화예술단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강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강홍구 위원

- 예, 답변은 되었습시다만, 이 분들이 고사하기 전에 후보자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미리 알려주실 건가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연락드리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 예,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회와 사전에 상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마로니에 공원에서 동아제약과 수석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제37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1983년부터 이어온 우리나라 최고의 전국여성 백일장 행사인데요. 시상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승정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이 될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한 분의 위원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무처에 물어봤는데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연극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요. 방금 이런 것도 랜덤으로 하는지 알았어요.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적격성도 랜덤에 의해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되었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희경 위원

- 조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미숙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정회)

(17시 53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사업 잔여예산을 활용한 지원계획수립입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17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제768호 2019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사업 잔여예산을 활용한 지원계획 추진(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19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의 잔여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를 대상으로 지역순회 공모를 2회 추진하였으나 적은 예산 규모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업개선을 위해 진행한 토론회, 자문회의 등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영리전시공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컨퍼런스, 전시 등 관련 행사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추진경과는 지역순회 관련된 규모에 대한 추진경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자나 지역의 국립미술관장과 저희 위원회가 한번 만났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시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3)번의 지원 목적을 보시면 비영리전시공간은 동시대 한국미술에서 신진작가의 등용문으로 기획자나 작가, 비평가 등의 주요 활동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 공간 운영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와 컨퍼런스 등 2가지로 나뉘집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지원대상은 (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입니다.
지원예산은 총 2,200만 원으로 잔여예산 전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제768호 2019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사업 잔여예산을 활용한 지원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가 계획을 세운 사업계획서와 예산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죠.

잔여예산을 활용하기에는 올해 회기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각예술 부분은 전체 예산의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서 가능하면 잔여예산 없이 전체를 집행해 보겠다는 목표로 이루어진 것이니 위원님들 모두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년도 문학창작집필공간 잔여예산을 활용한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인데 23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번을 보시겠습니다.

문학집필공간운영사업은 작가들한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5,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정시공모지원결정액 2억 5,000만 원으로 5건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객주문학관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5,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요. 이것을 저희가 추가 공모를 해서 3,500만 원을 다시 결정해서 광주에 있는 살림문화재단에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예산 2,100만 원이 다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수행 가능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의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집필공간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모니터링을 수행했었는데 여기에 2개 정도의 과업을 추가해서 보조사업자를 ‘미래전략연구소’ 라는 곳을

지정해서 교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미래전략산업연구소' 라는 곳은 최근 2년 동안 선정된 집필공간에 대해 사전모니터링을 수행했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가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주요 실적성과를 정리한 연간지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필공간에 입주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모아서 연간지를 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필 공간 운영실적 평가를 기관을 정해서 수행했었지만 실제로 수행 주체들을 네트워킹하고 집단교육을 통해서 사업의 개선내용을 논의하는 네트워킹을 포함한 과업을 반영해서 2,10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선정단체와 집필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10월과 12월까지 해서 본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정되어 일을 하고 있는 그 단체에게 이러한 내용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쓰는 건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단체에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단체들을 평가모니터링하고 그 단체들을 네트워킹해서 성과를 정리한 연간지를 발간하고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희경 위원

-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분들이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의 평가로 들어와 계신데요. 이 과제들을 없어서 주는 게 아니라.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아닙니다.

○이희경 위원

- 별도로 지정하는 것인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축약하여 네트워크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나종영 위원

- 24페이지 하단에 집필 공간 5개소의 주요 실적 및 성과를 정리한 연간지 발간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성과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작품을 모은다는 뜻인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일부 글도 모으려고 하고요. 집필 공간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나타난 성과들을 모아서 연간지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죠.

○김기봉 위원

-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뭐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객주문학관은 잘 아시다시피 김주영 선생님이 객주문학관에 관여하고 계시고요. 실제 운영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김주영 선생님과 지자체 간에 의견일치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해서 차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고 저희 쪽에 사유를 전달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런 경우 페널티는 없나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사업기간 내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이내에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에 준해서 기한 내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러면 모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없고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국제문화포럼 보조사업자 선정의 건입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제 770호입니다.

6.15 민족문학인협회는 2005년 평양에서 결정된 남북통합문학단체입니다. 분단 이후 유일하게 작가들이 하나의 단체로 묶인 협회인데요. 남측사무소와 북측사무소를 두고 공동기간지를 발간하고 6.15 통일문학상을 제정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2005년에 결성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안건은 남북문학교류의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 6.15민족문학인 남측협회를 지정교부처로 결정하고 6.15 민족문학인 협회를 통해서 향후 남북문학의 직접적인 교류 또는 단기적으로 연내에 간접적인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산은 2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 예산은 국제문화포럼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대산문화재단과 1:1 매칭을 통해서 총 4억의 사업비로 작년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대산과의 협약이 작년까지로 종결되고 사실상 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용처가 조금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여건 상황으로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흐름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사전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통일부와 문체부 등과 사전에 협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의결해 주시면 문체부에서 정식 공문을 접수 받아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6.15민족문학인협회에서 곧 열릴 예정인 재결성 행사가 있는데요. 재결성 행사는 통일부 차관이 참석하기로 이미 말씀을 해 주셨고요. 문체부에서는 아직 답이 없기는 한데 현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국제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를 저희가 진행해야 하는데요. 당초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연변과 블라디보스토크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당분간 남북교류 행사 등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인되어서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 싶고요. 이것은 저희가 6.15 민족문학인협회 측이 북측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달라는 의견을 이미 전달한 상황입니다.

개최는 12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행사의 주제는 “항일과 동아시아 문학” 으로 남북의 문학연구자, 작가고요. 여기 자료에는 필리핀, 중국, 일본 등으로 되어 있지만 블라디보스토크로 방향이 정해지면 러시아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세부내용은 자료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자료는 6.15 민족문학인 남측협회에서 제공한 가안입니다. 장소가 결정되면 빠르게 성안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6.15 민족문학인 남측협회는 재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작가회의 단일단체 위주로 주도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문학계의 주요 5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인협회, 시인협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추진하는데 이미 합의 했고요. 결성식에 앞서서 기존에 이사장으로 계셨던 염무웅 이사장님께서서는 자리를 내놓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제770호 국제문학포럼 보조사업자 선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보고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의결주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문학포럼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과 지원액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의결주문을 보시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지원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정할 사항은 2가지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박두현 본부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의결주문사항을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분명하게 해서 의결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정대훈 문학부장이 의결주문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남북문학교류 재개를 위해서 국제문화포럼의 보조사업자를 ‘6.15 민족문화인 남측협회’로 선정하고 지원예산을 2억 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붙였는데요. 현대아산에서 준

2억을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에 써야 하는데요. 그 사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단일창구인 6.15 민족문화인 남측협회에 주자는 것입니다. 첨부 자료가 너무 많은데 사실 첨부 자료는 필요가 없어요. 6.15 민족문화인 남측협회가 그 행사를 주관하고 현장에 주는 돈은 2억이라는 것에 대해 승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때 참고하셔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나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남북 및 국제교류 소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나종영 위원

- 예, 저희들이 2번 검토를 했어요. 북한과 직접 접촉은 어려우니까 중국과 연변 등을 접촉했는데요. 그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15 민족문화인 남측협회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진전이 되었어요. 승인을 해 주면 직접적으로 실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승인을 해 줘야 중국도 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위원

- 확인만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대아산에서 돈이 들어온 것인가요? 그런데 34쪽을 보시면 예산집행을 현대아산이 대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2억은 현대아산에서.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현대아산하고 할 경우에는 매칭을 해서 작년에도 했어요.

○박종관 위원장

- 올해 2억 전체가 기금인 것이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수정하겠습니다.

현대아산이 아니라 대산문화재단입니다. 대산문화재단하고는 협약관계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이 사업을 국제문화포럼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북문화교류의 간접 교두보 확보를 위한 '국제문화포럼' 이라고 해서 남북작가들이 같이 만나는 자리를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돈을 집행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6.15 민족문학인 협회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현대아산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박종관 위원장

-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전효관 사무처장

- 34페이지를 보시면 현대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산 집행 대행에 '현대아산'으로 되어 있네요. 원안은 수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요. 일단 회의자료 34쪽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 대행이 회의 자료에는 현대아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이것은 6.15 민족문학인협회의 안입니다.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한테 보고 자료로 전달된 내용이고요.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첨부를 하면 안 되는 자료를 첨부했네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신청서를 낸 것이네요. 나종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금사업 2억을 6.15에 집행하겠다는 것까지네요.

○박종관 위원장

- 의결주문사항이 포함된 27쪽을 “남북문학교류 재개를 위해 2019년 국제문학포럼 보조사업자를 6.15 민족문학인 남측협회로 선정하고 그 액수를 2억으로 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원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주문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동의를 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견이 없고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논 의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의결사항이 매듭 되었고 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논의사항은 지역 균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논의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누군가는 해야 할 텐데 누가 해 주시겠어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장계환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자료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문예진흥기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지원한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공모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신청 대비 선정 현황자료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수도권 및 인구분포 현황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균형 지원을 위해서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지원 비율을 일정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제시했고요. 세부 내용으로는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순회사업, 창작 분야 등 3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은 올해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요. 분석해 보니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약 6:4의 비율이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자료를 보니까 6:4의 비율을 요구했습니다만, 수도권 대 비수도권 50% : 50%는 위원장님의 지역에 대한 의지로 표현하셔서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순회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 지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6% : 44%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왔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작 분야는 비수도권 선정 비율을 30% 정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다만, 창작산실이나 국제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비수도권에 일정부분 쿼터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창작산실과 국제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참고1, 2, 3은 현황 자료 분석에 대한 세부 자료입니다. 토론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토론을 이어가 주시죠.

그러면 황진수 본부장의 보고를 마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지역협력 라운드테이블 및 제4차~제7차 소위원회 결과 요약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 지역협력부장

- 그동안 저희 지역협력소위원회 김기봉 위원님과 사무처 지역협력부에서 3~4개월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50여명의 지역분들과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역정책분야에 있어서 중앙이 할 일은 중앙이 하고 지역에서 할 일은 지역에서 했습니다. 다만, 중앙과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협치로 하자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현황자료를 보시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60%로 되어 있는 것은 전국과 해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도권은 39%, 비수도권은 44%였는데요. 공모사업 수도권 및 비수도권 신청 대비 선정 현황을 보시면 수도권은 73.8%고 비수도권은 26.2%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뒤에 자료로 붙인 것은 지역문화예술 관련해서 자치단체와 광역재단이 문화예술 쪽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를 분석했는데요. 1%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광역문화재단의 목적인 예술창작지원의 지역이 3%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계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또 대안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추구하고 있는 중앙단위의 사업은 수월성을 유지하되 대안으로써 앞으로 예술위원회 지역사업들은 아르코 협약을 통한 (가칭)예술지원협약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전국 지자체와 광역재단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특히 공연장상주사업을 공동협약방식으로 점차 개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아르코혁신TF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김기봉 위원님이 많이 주장하신대로 기존의 한지협을 (가칭)예술지원협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논의 내용들은 첨부하였으니 봐 주시

면 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페이지입니다.

이런 협약안은 다른 프랑스나 독일, 영국의 사례를 보니 여기도 처음에는 중앙단위의 사업을 하다가 지역분과가 생기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중앙과 지자체 간에 또는 영국예술위원회와 지자체 간에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일을 다녀왔는데요. 독일은 철저하게 분권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용장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시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예술지원협약사업이라고 하는 방식을 제안하실 때는,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이 하던 지역사업들이 모두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관되는 것과 별도로 예술위 안에서 그런 사업을 새로 설계한다는 뜻인가요?

○황진수 지역협력부장

-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논의하면서 이관 자체보다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방식은 지역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남아 있는 소위 말해서 공연장상주 등을 중앙사업도 아니고 지역사업도 아닌 협약사업으로 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들을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원래 토의사항으로 있는 것을 단기대안으로 보시고 별도로 나눠드린 참고자료인 라운드테이블 소위원회 결과 요약물 중장기적 대안으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지방으로 이관된 그러한 사업들이, 기존에 하던 것까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예술위 차원에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나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것은 논의의 레벨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 심의제도에서 지역선정비율과 관련된 것이 있고요. 지금 이 얘기는 예술행정의 분권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

- 후자의 얘기는 우선 지역문화협력소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공연장상주를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영역의 분권형 예산집행 등 시스템적인 얘기라서요. 협약의 내용들은 별도의 트랙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아젠다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에 나온 지원심의에 대해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2가지가 대안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청년 사업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역의 비율을 5 : 5로 한번 해 보자는 안이 있고요. 창작분야에서는 국제교류와 창작산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정비율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요. 이것은 여러 군데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광범위하게 방향을 정하고 논의해서 최종적인 것으로 확장해 나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확장하거나 의결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당장 우리가 다음 사업부터 심의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반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효관 사무처장

- 현실적으로 청년 5 : 5로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미리 공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물론 일정비율로 분배한다고 되어 있지만 비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강홍구 위원

-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지만, 수도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죠. 그것도 얘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승정 위원

-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문화의 틀을 만들고 그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전형 외의 방법도 있고요. 최소한 3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해야지 이 시점에서 확일적으로 정해놓으면 안될 것 같아요. 저하고 황진수 부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통위원회나 지역에서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나종영 위원

- 통계의 마술이라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을 보면서 지역이 소외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

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교묘하게도 신청건수로 통계를 내놓았어요. 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을 빼고 여러 광역단체를 다 포함하니까 신청대비 선정비율이 7 : 3이죠. 이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왜 자꾸 문제 제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비율을 보면 50 : 50 아닙니까? 그러면 건수도 50 : 50으로 해야 하고 금액도 50 : 50이 맞죠. 그리고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금액을 얼마씩 지원했느냐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부산 출신은 아니지만 부산은 없다는 말입니다. 부산의 인구가 300만인데 없어서 항상 물어보는데요. 이 통계를 제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고민하는 측면에서 통계를 분석해 줘야죠. 7 : 3이면 40%로 올리면 문제 해결이 되느냐?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53페이지를 보시면 금액 등이 있는데요. 금액도 경기, 서울, 인천이 약 30% 조금 넘습니다. 하나는 최근 3년간 문예기금 지역별 지원 세부 현황이 가, 나, 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서울, 인천을 했을 때 2018년도에 약 38% 정도가 나오고요. 2019년도에도 그 정도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여기에서 전국이라고 표시된 것이 됩니까?

○전효관 사무처장

- 통계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 자세히 못 봐서 죄송한데요. 이게 행사장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순회사업 같은 경우 지역에서 하니까 압도적으로 수치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요. 5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사실은 광역문화재단 창작예산을 내리려고까지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광역단위의 지원예산의 규모가 차이가 나서 지역편중을 심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광역재단 중에서 창작지원 비율을 구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시면 전체 광역재단 지원금 중에서 경기와 서울을 합치면 꽤 높잖아요. 부산까지 합치면 압도적인 것이고 나머지 광역은 적습니다. 이런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셨으면 합니다.

○나종영 위원

- 55페이지 전체예산은 됩니까?

○황진수 지역협력부장

- 재단의 예산입니다.

○나종영 위원

- 당연히 문화재단이니까 높게 나오는 것이죠. 아주 잘된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처장님이 지적한 대로 회의 자료를 보충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52쪽에 있는 통계는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표를 만든 것인데요. 수도권인구와 예술단체가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청건수가 많은데요. 문제는 수도권에서 신청해서 선정되는 비율도 높으니까요. 지역은 신청건수도 적지만 선정되는 선정비율도 적어서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라고 넣은 표입니다.

○김기봉 위원

- 자료를 다시 만드실 때 신진, 여성, 지역도 교차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효관 사무처장

- 데이터가 가능합니까? 신진과 나이를 구분하는 데이터는 만들어야 할 텐데요.

○이희경 위원

- 어제 보니까 여성은 다 해놓았더라고요.

○김기봉 위원

- 심의전문가 등록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의 여성비율은 8.3%잖아요? 수도권은 남녀비율이 거의 비슷한데요. 지역으로 내려오면 여성이 8.3%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남자와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성도 지방에 사는 여성이 있기 때문에 교차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만들어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예술창작의 수월성이라는 확실한 기조 중심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가 나주로 내려갔는데 지역에서 사시면서 지역에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대학로에 예술위원회가 있을 때와 나주에 예술위원회 사무처가 내려가 있을 때하고는 삶을 바라보는 것부터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동안에 신진과 여성과 지역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상식과 공감에 의해서 6기 위원회는 이 문제를 보완하자고 해서 지역과 신진이 지역위원회에 30%이상, 그 다음에 장르나 각 사업의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해서 권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이것이 체감까지는 못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더욱이나 15년 전 예술위가 출범할 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출발할 때와는 지역이 처한 현실이 더 엄중해 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과제라는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좋은 작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에서도 예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 또한 국가적 과제이고 국정과제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심의위원 선정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사업구조가 변화하는 데는 체감까지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전면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심의위원들의 선의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김기봉 위원님이 요청하신 신진, 여성, 지역 부분은 아마 저희가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은 나이대와 성별을 구분할 수 있지만 단체로 지원되는 것은 대표자의 성별을 따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인지?

○김기봉 위원

- 이것은 사업별로 가야될 것입니다. 전체 사업으로 묶으면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술위원회를 남자와 여자로 묶어 놓는 것도 데이터가 갖는 오류의 문제가 있고요. 창작산실 사업이나 문화일반 사업 등 각종 사업에 있어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근거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될 겁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라는 것에 패러다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정책혁신부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받아보고 연차별로는 개선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된 지표가 무엇의 효과인지? 제가 볼 때는 아마 향유 사업이 늘어난 효과를 합치니까 개선된 것처럼 보인 가능성이 있고요. 창작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더 이전에 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 균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균형지원이라고 말할 때 성별, 지역, 연령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만 따로 떼어서 논의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논의를 계속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균형지원으로 논의하고 난 다음에... 어제 저도 성평 등 예술지원정책에 참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기회평등, 과정공정 이 문제를 성별지원으로 해서 여전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균형지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지역이 급하니까 지역은 오늘 기본적인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김기봉 위원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미 어느 쪽도 30% 이상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하자는 것과 특정한 성이 어느 쪽이라도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을 의결했다는 것 아십니까?

○김기봉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의결한 사항이면 의결한 사항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봉 위원

- 권고사항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해야 한다가 아니라 권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시 요약하자면 이른바 수월성 중심으로 40여 년간 해온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주는 특별한 원칙 하나로 이른바 균형지원이라는 부분들을 시급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부분에 합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나종영 위원

- 통계를 뽑으실 때 아까 말한 대로 향유를 포함하면 희석이 됩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계를 보니까 전국이 있는데요. 이것도 분명히 수도권에 소재한 단체일 것입니다. 그것이 14.3%라고 하는데 결국 서울이나 수도권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도출하실 때 그 문제에 맞게 통계를 뽑아주셔서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뽑아보니까 “7 : 3이니까 대충 됐네.” 라고 답변을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때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아까 나 위원님의 질문 중에서 액수로 산출하면 어떻게 되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국회자료 등을 보면 53페이지 금액인데요. 행사 장소가 아닌 단체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강홍구 위원

-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오늘 토의해서 모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요. 기초자료를 다시 한 번 체크하고 통계작업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 지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작해야 해요. “지역 지원이 정말 효율적인가?”, “그럴 필요가 있었나?” 왜냐 하면 막연한 추정치고 지역의 분위기만 반영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 냉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원을 하면 정말 효과가 있는가?”, “가능성이 높은가?” 이것도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서 그에 대한 정책이나 패러다임에 대해서 해야죠. 막연한 추정치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힘들더라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

- 1차적으로 방향 설정은 있는 것을 가지고 지역 얘기를 하자고 하기에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액수가 달라요.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정원 외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영역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술국에는 장르 중심으로 지원하고

지역문화국은 생활문화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예술위는 지역을 불문하고 공모사업 쪽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지역에서 예술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정책 속에서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슈화 하고 쟁점화 하고 담론화 해서 저는 예술위가 이 부분들을, 1차적으로 신규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잡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 내부의 예산에서 이 문제의 부분을 일정정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접근한다고 하면 아마 장르 쪽에 있는 예술인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51쪽에 제시된 3가지 안 같은 것들은 지금 소위원회 검토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견들의 쟁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간단한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하나는 사무처에서 데이터를 정비해서 제시해야 할 것 같고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말 논의가 가능한 수준의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요약하겠습니다.
정책 판단이 가능한 지원현황의 재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시된 안을 어떻게 현장의 검토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올해 기준으로 6 : 4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단순히 배분을 했을 때 경쟁률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원예술 같은 경우 수도권은 6 : 1입니다. 그에 반해서 비수도권은 2.4 : 1입니다. 현재 경쟁률 자체가 비수도권이 훨씬 더 신청대비로 하면 선정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5 : 5로 하면 다원예술 같은 경우 8.2 : 1로 수도권은 8명 중에 1명이 받고요. 비수도권은 2명 중에 1명이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히 5 : 5로 하는 것보다는 6 : 4에서 5 : 5로 갔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률이 얼마나 심화되는지를 같이 고민해서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처장님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수도권은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청년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효관 사무처장

- 덧붙이면 서울시 같은 경우 프로젝트를 내면 예술인 등록 이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인당 3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창작안전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도 마찬가지로요. 예술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역에서 예술을 하는 분들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하면 정책 결정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기봉 위원

- 지금 본부장님의 논리를 갖고 하면, 예를 들면 문화예산을 분석하면 시 전체 예산에 문화 쪽과 관련된 예산 속에서 지역주민들 인구를 나누면 1인당 얼마를 지원 받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농촌에 사는 분들이 10만 원, 중소도시에 사는 분들이 5만 원,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2만 5,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부분이 높습니까? 그 부분들은 향유뿐만 아니라 창작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서울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려해야 할 변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울문화재단의 예술 쪽 예산이 20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 예산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서울은 무엇보다 시장이 있어요. 지역에서는 예술시장이라는 것은 꿈도 못 꾸요.

○박종관 위원장

- 이 부분은 오랫동안 논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정책의 문제고 결정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논의를 충분히 이어갈 만큼의 자료제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우선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혁수 위원님께 여쭙보고 싶은데요. 연극협회가 중장기창작지원 이후에 어떤..

○김혁수 위원

-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문자를 했는데요. 연극협회가 모여서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창작지원사업도 중장기창작지원사업이고요. 전체적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극인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만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건이 발단이 되었지만 “2030 등 지역사업 개선 부분에 있어서 연극인들은 한 번도 불림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이다.” 라는 내용을 월요일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잔치 앞에 두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연극협회도 일부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 주 중에 자기들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올 테니까 제발 위원장님과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 문제는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만나자고 하는데 언제 제가 안 만난 적이 있습니까.

○김혁수 위원

- 죄송합니다만 본부장님 선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부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지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혁수 위원

- 위원장님이 시간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현장이 요청하면 지금까지도 꾸준히 만나왔습니다.

○김혁수 위원

- 지금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논의 종결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강홍구 위원

- 종결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오늘 의견을 주신대로 정책판단이 가능한 만큼의 자료를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와 업그레이드 한 것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되는 내용들을 이메일로 공유하고요. 저희들 정식 위원회가 10월 25일 위원회를 할 때 논의사항에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때까지 자료 정리가 될까요?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데이터는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 데이터를 분야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향유과 창작을 지원예산으로 합치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
요.

○이희경 위원

- 어제 성평등 소위에서 했던 자료 중에 성별을 나누기 전에 사업 전체에 대한 통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 정도를 사업별로 봐도 도움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다 해야 하는 거
잖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종영 위원

- 통계는 추세로 보면 됩니다. 정밀하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세로 되는지를 알려는 것이니까요.

○이희경 위원

- 그래도 찾아야 되니까요.

○김기봉 위원

-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날짜를 하나 더 정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심의위원 통합선정위원회를 23일이나 늦어도 24일까지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통합선정위원회 일정 협의)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이 잘 도와 주셔서 회의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10월 전체회의는 10월 25일 오후 3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관계로 긴 시간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258차 위원회 임시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0분 회의종료)